

부모-자녀 관계와 대학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Mediation Effect of Empowerment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ollege Adjustment

신선화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Sun-Hwa Shin(shinsh@syu.ac.kr)

요약

본 연구는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21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자녀 관계는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및 대학 적응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는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간접효과(매개효과)가 있었다. 부모-자녀 관계가 임파워먼트를 통해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사회적 지지를 통한 간접효과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대학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자녀 관계 개선, 사회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친밀감 향상, 대학 적응에 강력한 요인인 임파워먼트 강화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부모-자녀 관계 | 대학 적응 | 임파워먼트 | 사회적 지지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empowerment and social support in the proces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ffecting the college adjustment. In this descriptive research, 219 university students were recruited as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from May to June 2019 via onlin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child relationship had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empowerment, social support, and college adjustment. Moreover, parent-child relationship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students' college adjustment via empowerment and social support. The indirect effect of empower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 support with respect to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college adjust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parent-child relations and emotional intimacy through social support to promote the college adjustment of student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apply a program that can enhance empowerment, which is a powerful factor in college adjustment.

■ keyword : | Parent-child Relations | College Adjustment | Empowerment | Social Support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증가하였으나, 취업 및 스펙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한다거나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1]. 또한, 국내 대학생의 현실은 취업난으로 인한 일자리 참여 감소,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 증가, 학업스트레스 및 주거시설 취약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로 인해 벼랑 끝에서 있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2].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휴학이나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대학 적응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 및 학점관리, 대인관계, 취업 준비, 대학에서 요구하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대학이나 대학생활에 애착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3]. 대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는 획일적인 교육 속에서 수동적인 생활을 해 왔지만, 대학에 입학하면서 능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노출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및 진로에 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 적응이 낮게 나타났고[4], 대학에 진학할 때 대학 및 학과 선호도가 높을수록 대학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5]. 또한, 대학생활에 부적응한 학생은 학업적 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감을 경험하였다[6]. 대학생의 대학 적응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주로 학업 성취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지만, 이제는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대학 적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6][7].

대학 적응은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그중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출생 후 처음 형성되는 인간관계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은 정서조절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8].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이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감소하였고[9], 특히,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

다[10].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헌신적이고 돌봄적이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10][1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안정적인 애착에서 비롯되며, 부모-자녀 관계의 애착이 안정적이면 다양한 변화에도 도전할 수 있는 원천이 되어 대학 적응 정도가 향상되었다[7][12][13].

대학 적응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4][12][13], 자아존중감[15], 자아탄력성[16], 자기조절능력[17] 등 개인이 가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능력의 속성을 포함하는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임파워먼트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삶에 관한 책임성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이다[18]. 대학생의 임파워먼트는 심리적 웰빙이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었으며[19-21],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개인내적 자원으로 확인되었다[21]. 또한, 임파워먼트가 강하면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22], 임파워먼트는 대학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학업, 대인관계, 환경적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은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사회화 영역이 확장되는데,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대학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을 도모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켜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7][14]. 또한, 대학생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으며[7], 사회적으로 지지 체계가 잘 형성될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23]. 이렇듯 사회적 지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대학생 시기에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대학 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한다[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15], 자기효능감[5][13][14], 자아탄력성[16]과 같은 개인내적 측면과

사회적 지지[7][14], 부모-자녀 관계[7][12][15], 교수와의 친밀감[24]과 같은 개인외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학업, 진로, 취업,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4][11][17].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능감과 장점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능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으로[18][25],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1]. 이에 대학생의 임파워먼트는 대학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학생의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어려서부터 형성한 부모-자녀 관계를 지각하는 정도, 개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임파워먼트, 타인과의 의미있는 관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지지의 요인들이 대학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및 대학 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및 대학 적응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셋째,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넷째,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다섯째,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한다.

여섯째, 임파워먼트를 통한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

를 통한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한다.

3. 연구의 이론적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문헌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우선 대학생의 대학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대학생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 정도를 의미하는 부모-자녀관계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가 대학 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였다[7][12][13]. 그리고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와 대학 적응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개변수로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긍정적 자아개념이 대학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4][13][14], 대학생의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대학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7][14]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14], 부모-자녀관계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23], 자기효능감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던[19] 연구결과를 통해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이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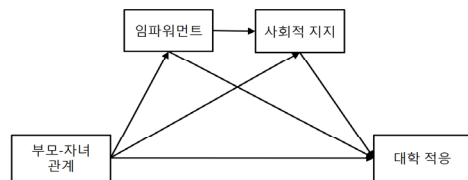


그림 1. 이론적 모형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 임파

워먼트, 사회적 지지 및 대학 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현재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4년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설문 문항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이며, 제외기준은 설문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대학원 및 평생교육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하였고, 회귀 분석을 위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10개와 부모-자녀 관계,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대학 적응을 포함하여 14개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94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최종 219명이 참여하였고, 이는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 연구 도구

2.1 부모-자녀 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부모-자녀 관계는 최인재[26]가 개발한 한국형 부모-자녀 관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자녀 관계 측정도구는 20문항이고, 친밀(7문항), 헌신(6문항), 존경(4문항), 엄격(3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역문항은 역재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최인재[26]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2 임파워먼트(Empowerment)

임파워먼트는 Bolton과 Brookings [27]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희성[28]이 번안한 후 타당도 검증을 수행한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임파워먼트 측정도구는 29문항이고, 개인의 능력(16문항), 집단 인식(5문항), 자기결정(8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음으로 해석하였다. 김희성[28]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는 Abbey, Abramis와 Caplan [29]이 개발하고 유성은과 권정혜[30]가 번안한 사회적 지지와 갈등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갈등 측정도구는 11문항이고,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적 측면(6문항)과 갈등적 측면(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으로 해석하였다. 유성은과 권정혜[30]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4 대학 적응(College adjustment)

대학 적응은 정은이와 박용한[31]이 개발한 대학 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학 적응 척도는 19문항이고, 대인관계(4문항), 학업활동(4문항), 진로준비(4문항), 개인심리(4문항), 사회체험(3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은이와 박용한[31]의 연구에서 도구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계획 및 윤리적 절차에 대한 승인(승인번호: 2-7001793-AB-N-012019045HR)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5월 중순에서 6월까지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하여 네이버폼을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온라인상에서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이 학과 사무실을 통해 학년 과대표를 소개받았고, 과대표를 찾아가 연구목적과 진행방법을 안내하였다. 과대표는 학생들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SNS에 URL 링크 주소를 업로드하였다. 대학생이

SNS상에서 연구대상자 설명문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연구목적, 설문 진행방법, 수집된 자료의 비밀 보장, 설문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 철회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무기명 설문조사로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설문 문항에 포함하지 않았고, 설문에 중복 참여와 설문 완료 후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처만 수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연구대상자 설명문을 직접 읽고 '동의란'에 체크한 이후에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하여 응답을 완료하면 기프티콘을 전송하였다.

4. 분석 방법

연구의 자료분석은 IBM사의 SPSS 25.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ersion 2.16 확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수들의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수행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분산분석 후 Scheffé의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측정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한 PROCESS Macro (Model 6)를 사용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를 경유하여 대학 적응에 미치는 매개모형의 각 경로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비모수재표본추출법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10,000회의 표본을 재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에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경로의 매개효과의 차이 값을 산출하여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32][33].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적응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122명(55.7%), 남학생이 97명(44.3%)이었

고, 연령은 21-23세가 114명(52.1%), 20세 이하가 74명(33.8%), 24세 이상이 31명(14.2%)이었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134명(61.2%)으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열이 60명(27.4%), 예체능계열은 25명(11.4%)이었다. 형제 수는 1명이 156명(71.2%)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123명(56.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은 '건강한 편이다'가 117명(53.4%), '보통이다'가 77명(35.2%), '건강하지 못하다'가 25명(11.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1], 성별, 연령, 전공, 형제 수, 지각된 건강상태에 따라 대학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전공 만족도에 따라서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었고, 사후 검증 결과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인 그룹과 만족하는 그룹은 불만족하는 그룹에 비해 대학 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8.81, p<.001$).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 적응의 차이 (N=219)

특성	범주	n(%)	대학 적응	
			M±SD	F(p)
성별	남학생	97(44.3)	3.22±0.57	.92 (.338)
	여학생	122(55.7)	3.15±0.49	
연령	≤ 20	74(33.8)	3.09±0.49	1.94 (.147)
	21-23	114(52.1)	3.22±0.57	
	≥ 24	31(14.2)	3.27±0.41	
전공	인문/사회 이학/공학	134(61.2)	3.17±0.53	.11 (.894)
	예체능	60(27.4)	3.21±0.54	
		25(11.4)	3.18±0.50	
형제 수	없음	11(10.0)	3.32±0.60	.87 (.420)
	1명	156(71.2)	3.17±0.52	
	2명 이상	41(18.7)	3.16±0.53	
전공 만족도	불만족함 ^a	25(11.4)	2.81±0.49	8.81 (.001) a(b,c)
	보통임 ^b	71(32.4)	3.15±0.51	
	만족함 ^c	123(56.2)	3.28±0.52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하지 못함	25(11.4)	3.11±0.62	.75 (.472)
	보통임	77(35.2)	3.15±0.46	
	건강한 편임	117(53.4)	3.22±0.55	

2. 부모-자녀 관계,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및 대학 적응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연구변수인 부모-자녀 관계,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및 대학 적응의 평점 평균과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표 2]. 부모-자녀 관계는 5

점 만점에 3.93점(±0.69), 임파워먼트는 5점 만점에 3.30점(±0.54), 사회적 지지는 5점 만점에 3.75점(±0.63), 대학 적응은 5점 만점에 3.18점(±0.53)이었다. 연구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정규성 가정을 확인한 결과, 왜도는 절대 값이 1 이내에 분포하였고(-0.51~0.21), 첨도는 절대 값이 7 이하에 분포하여(-0.21~0.56)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및 대학 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2]. 부모-자녀 관계는 임파워먼트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29, p<.001$),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33, p<.001$), 대학 적응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38, p<.001$).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r=.55, p<.001$), 대학 적응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69, p<.001$).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는 대학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4, p<.001$).

표 2. 주요 연구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N=219)

변수	부모-자녀 관계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대학 적응
임파워먼트	.29 (.001)			
사회적 지지	.33 (.001)	.55 (.001)		
대학 적응	.38 (.001)	.69 (.001)	.54 (.001)	
M±SD	3.93±0.69	3.30±0.54	3.75±0.63	3.18±0.53
Skewness	-0.51	0.21	-0.41	-0.02
Kurtosis	-0.20	-0.21	0.56	0.37

3.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회귀분석의 가정이 충족되는지 검증한 결과, Dubin-Watson 값은 2.05로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었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은 2.84 이하로 나타나 연구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1.11, p<.001$).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 일반적 특성 중 대학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전공 만족도를 통제변인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단계 1에서 독립변수인 부모-자녀 관계는 1차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beta=.27, p<.001$). 단계 2에서 1차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는 2차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beta=.53, p<.001$), 부모-자녀 관계는 2차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beta=.16, p=.005$). 2개의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한 단계 3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1차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는 대학 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beta=.51, p<.001$), 2차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도 대학 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beta=.20, p=.001$). 또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수들이 추가되었을 때, 부모-자녀

표 3.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미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N=219)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참조변수)	B	SE	β	t	p	R ²	F(p)	VIF
1	임파워먼트	부모-자녀 관계	.21	0.05	.27	12.13	<.001	.129	10.66 (.001)	2.60 2.66 1.04
		전공 만족도(불만족)								
		보통임	-.38	0.12	-.33	-3.23	.001			
2	사회적 지지	부모-자녀 관계	.15	0.05	.16	2.87	.005	.377	32.39 (.001)	2.73 2.77 1.12 1.15
		임파워먼트	.61	0.07	.53	9.19	<.001			
		전공 만족도(불만족)								
3	대학 적응	부모-자녀 관계	.11	0.04	.14	2.85	.005	.545	51.11 (.001)	2.84 2.79 1.17 1.60 1.61
		임파워먼트	.50	0.06	.51	8.72	<.001			
		사회적 지지	.17	0.05	.20	3.44	.001			
		전공 만족도(불만족)								
		보통임	.14	0.09	-.12	-1.54	.125			
		만족함	-.19	0.08	-.18	-2.32	.021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관계는 대학 적응에 여전히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4, p=.005$), 모형의 설명력은 54.5%였다($R^2=.545, F=51.11, p<.001$). 연구변수 간의 관계와 경로별 계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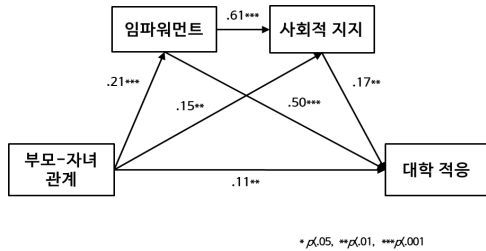


그림 2. 부모-자녀 관계와 대학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4.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유의성과 매개경로의 차이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Model 6)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95% 신뢰수준으로 검증하였다[표 4]. 분석결과, 부모-자녀 관계가 임파워먼트를 통해 대학 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Indirect 1)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11, 95\% CI=0.05 \sim 0.17$), 부모-자녀 관계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대학 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Indirect 2)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3, 95\% CI=0.01 \sim 0.06$).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대학 적응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Indirect 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02, 95\% CI=0.01 \sim 0.04$).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를 통한 2개의 매개경로의 차이(Indirect 1 - Indirect 2)를 검증한 결과, 부모-자녀 관계는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하여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Indirect 1)는 부모-자녀 관계가 사회적 지지를 통해 대학 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Indirect 2)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B=.08, 95\% CI=0.02 \sim 0.15$). 즉, 부모-자녀 관계가 좋으면 임파워먼트를 증가시켜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B=.11$)는 사회적 지지를 통한 매개효과($B=.02$)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임파워먼트를 통한 매개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표 4.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N=219)

간접효과 모형	경로	B	SE	95% CI
Indirect 1	IV → M1 → DV	0.11	0.03	0.05~0.17
Indirect 2	IV → M2 → DV	0.03	0.01	0.01~0.06
Indirect 3	IV → M1 → M2 → DV	0.02	0.01	0.01~0.04
간접효과 차이	Indirect 1 - Indirect 2	0.08	0.04	0.02~0.15

CI=Confidence interval; IV=부모-자녀 관계; M1=임파워먼트; M2=사회적 지지; DV=대학 적응.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대학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대학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요한 타인과 건강하고 바람직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일수록 대학생할 적응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7][23][34]. 특히, 어머니와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관계가 강할수록 안정감 있는 발달을 도모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23],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음으로 인해 자녀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리해서 애착 정도를 분석하지 않아 선행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부 애착이 모 애착보다 대학 적응에 큰 영향을 미쳤고[7], 부 애착이 대학생할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5]. 특히, 대학 신입생 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대학 적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남학생은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므로 상담가는 신입생의 성별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34]. 이를 통해 어릴 적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성인기에 이르러 대학생할을 할 때 적응적인 기

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이 대학생의 정서적 특성과 대학 적응의 어느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부모 애착 및 대학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대학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고,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가 다른 경로의 매개효과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에 비해 임파워먼트의 간접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변수와 일치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때 임파워먼트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고[19], 간호대학생의 폭력 경험이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가 매개역할을 하여[20],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사고체계, 대처 및 통제와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정신건강, 웰빙, 회복에 영향을 미칠 때 임파워먼트가 매개변수로 작용하였고[35],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기 위해서 자기주장적 임파워먼트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족관계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임파워먼트가 조절역할을 하여 임파워먼트가 유용한 개인내적 자원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22]. 최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업 및 학점관리, 스펙 쌓기,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이성 관계, 동아리 및 취미 활동, 자취, 음주, 흡연 등 대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졌을 때, 대학생들이 강한 임파워먼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생활을 선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위한 임파워먼트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대학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부모-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증가하였고, 증가한 사회적 지지는 대학 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와 진로결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하여[23]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대학 적응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여[7][14]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사회적 지지 중에서 친구의 지지가 대학 적응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7],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교수의 지지 순으로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6]. 부모-자녀 관계가 친밀할수록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높았으며[23], 대학생의 학업 부적응 문제가 친구 및 교수와의 대인관계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을 볼 때 [7][36], 대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대학 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관계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통해 친밀한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한 경험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됨을 알 수 있었다[23][36]. 따라서 생애 초기에서부터 부모와 자녀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예비 부모교육 및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을 주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는 이중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임파워먼트의 속성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이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14],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 임파워먼트, 사회적 지지 및 대학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7][11][14][23][34][36]. 이를 통해 어릴 때부터 대학생이 된 이후에까지 지속적인 교류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는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대학생의 임파워먼트를 강화시키는데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대학 시기에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가 친밀할수록 처음 접하는 대학환경 내에서 바람

직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대학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대학 적응의 질이 향상되었다[36]. 대학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갈등과 소외감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사회적 지지를 단절시키게 되고, 사회적 지지의 단절은 우울증, 불안, 성격장애 등과 같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37]. 사회적 지지는 대학 적응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의 하나의 단일요인이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라는 매개요인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대학 적응을 더욱 잘 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 및 진로에 만족하고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는 중재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 내적 자원인 임파워먼트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지지를 위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비롯하여 대학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 적응에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대학생의 표집이 일부 지역의 일개 대학에 국한되어 수행되었기에 연구결과와 일반화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여러 대학교에서 대상자 표집을 시도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서 대학생의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관계성을 확인하여 인과적 추론에 한계가 있으므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과적 추론을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대학생의 대학 적응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 형성에 관한 개념을 고려하기를 제안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대학 적응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모형을 단일요인으로 접근하였으

나, 본 연구는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매개효과 경로의 차이를 비교하여 의미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이중매개효과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개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대학생의 대학 적응에 있어서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면서, 임파워먼트가 대학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자녀 관계가 대학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임파워먼트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를 통한 정서적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참고 문헌

-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pp.75-80, 2018.
<https://kess.chedi.re.kr/index>
- [2] 홍준표, 오준범, “청년층 경제 활동 제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벼랑(CLIFF) 끝 위기의 한국 청년,”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2018년 2월 14일자, 18-7(통권 782호), pp.1-11, 2018.
- [3] 김지현, 도현심, 신나나, 김민정, “어머니의 자녀관련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지지/통제의 매개적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9, No.4, pp.217-232, 2011.
- [4] 이숙정, 유지현,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Vol.22, No.3, pp.589-607, 2008.
- [5] 김지근, 이지원, 이기학, “대학 진학 시 대학 및 학과 선호도 타협 유형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한국심

- 리학회지: 학교, Vol.12, No.2, pp.249-269, 2015.
- [6] 서수균, 김계현, “대학생활적응도 테스트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Vol.36, No.1, pp.1-12, 2002.
- [7] 김종운, 김지현,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9, pp.248-259, 2013.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9.248>
- [8] L. E. Brumariu, “Parent-Child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2015, No.148, pp.31-45, 2015.
<http://dx.doi.org/10.1002/cad.20098>
- [9] 박상희, 이남옥,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가족과 상담, Vol.4, No.1, pp.1-18, 2014.
- [10] 이지선, 정혜정,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21, No.1, pp.99-121, 2016.
<http://dx.doi.org/10.21321/jfr.21.1.99>
- [11] 최지은, 신용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Vol.41, No.2, pp.199-210, 2003.
- [12] J. Mattanah, G. Hancock, and B. Brand,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1, No.2, pp.213-225, 2004.
<http://dx.doi.org/10.1037/0022-0167.51.2.213>
- [13] 홍계옥, 강혜원, “대학생의 부모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Vol.13, pp.133-144, 2010.
- [14] 강경아, 조혜영,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3, pp.210-218, 2018.
<https://doi.org/10.5762/KAIS.2018.19.3.210>
- [15] 이사라, 이주연, “아동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성인기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Vol.50, No.4, pp.1-10, 2012.
<https://doi.org/10.6115/khea.2012.50.4.001>
- [16] 박진아, 이은경,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Vol.17, No.3, pp.267-276, 2011.
- [17] 고명주, 최보영,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Vol.24, No.6, pp.81-104, 2017.
<http://dx.doi.org/10.21509/KJYS.2017.06.24.6.81>
- [18] M. A. Zimmerman, “Psychological empowerment: Issues and illustr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3, pp.581-599, 1995.
- [19] 김현주,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안녕감의 관계_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Vol.21, No.4, pp.181-201, 2014.
- [20] L. Ren and H. Kim, “Effects of bullying experi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mediated by conflict management styles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ong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lacement: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Vol.47, No.5, pp.700-711, 2017.
<https://doi.org/10.4040/jkan.2017.47.5.700>
- [21] 신선화, “대학생의 임파워먼트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정신간호학회지, Vol.26, No.3, pp.313-324, 2017.
<https://doi.org/10.12934/jkpmhn.2017.26.3.313>
- [22] 오주, “가족관계가 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의 증대효과,” 한국복지행정학회 복지행정논총, Vol.20, No.1, pp.127-149, 2010.
- [23] 석수진, 김장희,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교류분석상담연구, Vol.8, No.2, pp.19-35, 2018. <https://doi.org/10.35476/taca.2018.8.2.19>
- [24] 정은이, 박요한, “대학생들의 교수신뢰와 학습 동기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Vol.9, No.1, pp.73-93, 2008.
- [25] N. A. Peterson, “Empowerment theory: clarifying the nature of higher-order multidimensional construc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53, No.1-2, pp.96-108, 2014.
<http://dx.doi.org/10.1007/s10464-013-9624-0>

[26] 최인재,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연구보고(수시과제) 06-R2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27] B. Bolton and J. Brooking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er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43, No.2, pp.131-142, 1998.

[28] 김희성,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Vol.14, pp.91-113, 2002.

[29] A. Abbey, D. J. Abramis, and R. D. Caplan,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6, No.2, pp.111-129, 1985.
http://dx.doi.org/10.1207/s15324834basp0602_2

[30] 유성은, 권정혜,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16, No.2, pp.67-84, 1997.

[31] 정은이, 박용한, “대학 적응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방법연구*, Vol.21, No.2, pp.69-92, 2009.

[32] K. J. Preacher and A. F. Hayes,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Vol.36, No.4, pp.717-731, 2004.
<http://dx.doi.org/10.3758/BF03206553>

[33]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NY: Guilford Press, 2013.

[34] M. Hiester, A. Nordstrom, and L. Swenson, “Stability and change in parental attachment and adjustment outcomes during the first semester transi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50, No.5, pp.521-538, 2009.

[35] A. Grealish, S. Tai, A. Hunter, R. Emsley, T. Murrells, and A. P. Morrison, “Does empowerment mediate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on mental health, well-being, and recovery in young people?,”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Vol.90, No.3, pp.314-335, 2017.

<http://dx.doi.org/10.1111/papt.12111>

[36] 송진열,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Vol.18, No.12, pp.335-345,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335>

[37] H. H. Hinderlie and M. Kenny,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black students at predominantly white universit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2, No.3, pp.327-340, 2002.

저 자 소 개

신 선 화(Sun-Hwa Shin)

정희원



- 2002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석사)
- 201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과학과(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학, 보건, 응급간호, 정신간호